

전남어업인 5만여명 “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 헌재 탄원

‘현행 유지’ 염원 담은 서명부 전달...여수시·의회도 성명
대법원 유지 판결에도 경남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갈등

전남 어업인과 여수시민 5만30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지역 어업인들과 여수 시민의 생계가 달린 ‘현행 해상 경계 유지’ 탄원서가 5만3000여 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탄원서는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과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전남별치권현명협회장 등 10여명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현재 정문 앞에서 “전남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여 척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해상 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어장의 축소와 어족 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고

려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뒤 해상 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내 최종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드시 현행 해상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어업인단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어업인단체를 찾아 격려한 뒤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현행 해상경계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어업인들과 소통하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해상 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시의회는 성명에서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확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사도, 사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전남 어업인들과 여수시민 대표들이 지난 16일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의 헌법재판소 제출에 앞서 정문에서 현재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엄정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해상에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계급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잊지 않겠습니다”...여수시, 여순사건 온라인 추모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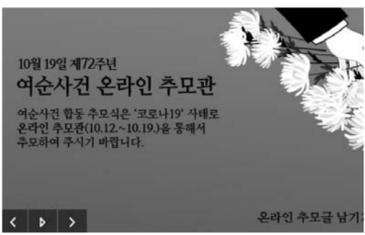
오늘 여수·순천 전역에 묵념사이렌

‘10·19 여순사건’ 제72주년을 맞아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고, 전남도와 여수시·순천시는 19일 오전 10시 추념행사와 함께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여순사건을 추념하는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

온라인 추모관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됐으며,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글과 여순사건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수시는 추모관에 남겨진 의견을 모아 여순사건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시민과 유족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여순사건의 상흔을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와 순천 전역에서는 19일 오전 10·19사건

희생자 추념행사에 맞춰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10시 이순신광장에서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연다. 추념행사에 맞춰 여수 전역에서는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특히 이날 추념식은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들도 참석해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순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기 합동추진위원회가 열리며, 이에 맞춰 순천 전역에서도 묵념사이렌이 퍼진다.

묵념사이렌은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시간으로, 전남민방위경보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작동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해남군, 전 주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보성군과 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18일 보성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보성군은 19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보성군은 지역 내 국가 무료 백신 대상자(생후 6개월~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이상 노인) 1만9000여명을 제외한 일반 성인(19~61세) 1만5000여명의 독감백신 물량을 확보, 이날부터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시작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상은 노출 등 문제가 된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정량 회수했다”며 “자체적으로 확보한 백신은 적정온도 유지 등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전 주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9일 공포, 행정절차를 마쳤다.

해남군도 전체 군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일자별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만 13세~만 18세(소아·임산부 포함), 19일부터 70세 이상, 26일부터 만 62세~만 69세이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만 19~61세 성인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 다음달 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독감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비비 1억1200만원을 들여 백신을 자체 확보했다. 예방접종 백신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4가 백신(바이러스 중수)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나주학회 창립총회·기념 학술포럼 개최



나주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포럼이 지난 16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나주학회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계표) 주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나주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학술포럼은 김덕진 광주대 교수가 ‘나주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주학회의 향후 역할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진도 돌김 위판 시작...120kg에 15만~17만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바다에서 자란 진도의 겨울철 별미인 돌김 위판이 시작됐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군면 회동 물양장에서 지난 13일 올해 진도 돌김 위판이 시작됐다. 위판 첫날 물김 32t이 거래됐으며, 120kg 한 망에 평균 15만~17만원에 거래돼 45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산 첫 햇김은 고군면 일대 김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고 해 일명 ‘곱창 김’으로 불린다.

곱창 김은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12월초까지 수확이 진행된다.

진도군의 2021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4813ha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7만7000t의 김 생산이 예상돼 위판고가 1000여억원으로 어업인 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지난해 6만7672t을 생산, 756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매매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장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